

“백련의 사랑, 무안연꽃축제 오세요”

회산백련지 일원 21일 개막 디스코 파티 등 행사 ‘다채’ 전국노래자랑·사생대회도

무안연꽃축제가 ‘연꽃의 향기! 백련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회산백련지 일원에서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사랑이 피어나는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다채로운 볼거리와 놀거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17일 무안군과 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연꽃을 주제로 한 연꽃미디어 주제영상관, 무대위를 식혀줄 연기능성 체험장, 체험형 관광을 위한 연꽃 미디어파사드 및 EDM 디스코 파티, 연빛달빛 야간행사 등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구성하고 있다.

먼저 ‘회산 백련지에 핀 사랑’을 주제로 수련공원에서 펼쳐지는 실경 주제공연에서는 회산백련지의 탄생배경과 설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이 춤과 노래로 펼쳐진다.

회산백련지는 일제의 암울했던 시대에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으로 축조되어 인근 농경지의

적절 역할을 해왔다.

백련 서식지로 번성한 것은 인근 마을 주민이 저수지 가장자리에 백련 12주를 구해다 심었는데 그날 밤 꿈에 하늘에서 학이 12마리가 내려와 앉은 모습이 흡사 백련이 피어 있는 모습과 같아 그날 이후 정성을 다해 연을 보호하고 기귀 현재는 10만평의 동양최대 백련자생지로 성장했고 매년 무안연꽃축제가 열리는 영산강변 대표 생태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스토리에 일로읍 청호리 우비마을에 전해져 오는 상사바위의 전설을 더해 ‘깨끗하고 순수한 변하지 않는 사랑은 회산백련지에서 연꽃축제를 통해 이뤄진다’고 스토리를 확장했다. 확장된 스토리텔링은 22일 오후 8시 수련공원에서 축제장 내 향토음식관 2층에서 운영되는 주제영상관을 확장된 무안연꽃축제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제1막 연꽃의 향기, 회산백련지 무안연꽃탄생, 2막은 12개의 연꽃과 꿈속의 12마리 학, 3막은 만개한 무안연꽃, 4막은 백련의 사랑, 사랑이 이루어지는 회산백련지 미디어아트를 통해 화려하고 아름다운 연꽃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4면에 프로젝트를 투여해 강력한 몰입감을 주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에

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연꽃축제를 방문한 어린이를 동반한 관광객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이다.

어린이와 함께 할 또 다른 장소는 ‘연기능성 체험장’이다. 체험장은 연의 다양한 효능을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여기에서는 연꽃 팔링수, 연근쉐이크, 연 쿠키&머핀, 연꽃 음료와 연자육 팔찌, 방향제, 비누, 캔들, 연꽃 문양공예 등 다양한 체험할 수 있다.

무안군축제추진위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여름밤 무대위를 날려줄 화려한 연꽃 미디어파사드와 디스코파티이다. 주 무대에서 펼쳐지는 미디어파사드는 7월 21일 불꽃쇼와 함께 선을 보이고 22일부터는 전문 DJ와 함께 EDM 공연을 접목해 본격적인 파티가 시작된다.

이밖에도 KBS 전국노래자랑, 청소년 사생대회, 어린이 독서 골든벨, 황도골 무안전국요리경연대회, 랜선 연꽃푸드교실, 연꽃축제 SNS 소개왕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뜨거운 여름이지만 생태관광의 메카인 무안연꽃축제장에서 사랑이 피어나는 시원한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장흥군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필리핀 루바오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장흥=제공

장흥-필리핀 루바오시, 외국인 근로자 도입 맞손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장흥군과 필리핀 루바오시가 맞손을 잡았다.

장흥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필리핀 루바오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 장흥군수, 혼 에스메랄다 피네다 루바오시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장흥군과 루바오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

·수·입업, 문화, 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수·입업 기술 전수와 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적인 지역 교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도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농번기 농가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로 하고 근로자의 생활복지 향상에 합의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신안장학재단, 상반기 장학금 지급

296명에 3억8,700만원

신안군장학재단은 최근 이사회를 개최해 상반기 장학생을 확정하고 초·중·고·대학생 등 296명 (우수대학생 118명, 내고장진학 29명, 저소득 장학생 83명, 다문화가정 24명, 만학도 21명, 어가 및 저소득자녀 21명)에게 장학금 3억8,700만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재단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장학생을 선

발·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읍·면사무소와 군 소재 학교에서 장학금 지원 신청을 받아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박우량 신안군장학재단 이사장은 “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안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현대삼호중, 외국인 조선 기술인력 양성 지원

목포과학대와 업무협약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김형관)이 지역 대학과 손잡고 극심한 전남 서남권 중소 조선별 취업체의 인력난 타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회사 본관에서 김형관 대표이사와 목포과학대 이호균 총장, 현대삼호사내 협력사협의회 김병수 회장,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대아산업 황주석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과 기업은 유학생 비자 전환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과 유학생 법적 학점 인정을 위한 사내 현실실습제도 마련, 실습 공간과 기자재 지원, 유학생의 지역 우선 정착 지원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목포과학대가 D2 비자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한국어 등을 가르치고, 현대삼호중공업에서 현장 실습 등 2년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5년간 E7 전문취업비자를 받아 대불산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회사 본관에서 글로벌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현대삼호중공업 제공

단과 삼호산단 등에 취업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전남 서남권 조선산업은 경관관에 비해 배후 인력 부족과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인

력 유입 감소 등으로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전남조선해양전문인력양성센터는 최근 지역 조선업체의 수요 증가로 2025년까지 9,000여 명의 조선 기능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영암=최복섭 기자

농협목포유통센터, 어린이 건강 식습관 지원

안전한 먹거리 제공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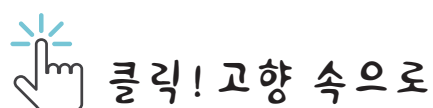
농협목포유통센터(사장 김석일)는 최근 센터 회의실에서 목포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신명숙)와 목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정현영)가 참석한 가운데 목포시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상호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목포시 어린이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을 통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진행됐으며, 이 협약에 따라 농협목포유통센터는 참여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및 홍보, 교육 지

원 등 각종 협력사업 추진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목포유통센터는 올해 목포시 학교급식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향후 3년간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목포 및 전남 관내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을 통해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목포시 어린이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농협과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석일 사장은 “농협·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집연합회 간 상호협력이라는 점에서 본 협약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협력지원 외에도 상생을 통해 우리 농산물·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장흥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기부 잇따라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는 최근 목련회, 산아자원 등 7개 단체에서 총 1,300만원을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목련회 200만원, 대운산업(대표 이사 이미경) 300만원, 산아자원(대표 고종진) 200만원, 진진개발(대표 이사 박정진) 200만원, 해동전력(대표 박시훈) 100만원, 전남살수(대표

박종홍) 100만원, 칠백건설(대표이사 서해주)에서 200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이날 기부자들은 지역사회 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흥군의 미래 인재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소중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목포경찰, 노인학대 예방 홍보

목포경찰서는 최근 목포시 상동에 있는 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무더위 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3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하고 치매

노인 안전을 위한 ‘배회금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며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인성폭력 범죄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피해자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목포=김동균 기자



담양학생자치연합회, 1학기 활동 공유

담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최근 초·중학교 담양학생자치연합회 임원 4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학기 동안 역량강화 캠프와 정기회, 임시회 등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담양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회의 진행을 직접 해 보는 기회를 많이 제

공하기 위해 회장과 부회장이 개회 선언부터 국민의례, 회의 진행, 폐회 선언까지 협의회를 직접 진행하도록 했다.

이숙 교육장은 “앞으로 학생자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일남 기자